

【토론】
【討論】

가정에서의 고령자 부양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역할분담
家庭での高齢者扶養のための
女性と男性の役割分担

정 경희
鄭 京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연구팀장
韓国保健社会研究院 老人福祉研究チーム長

家庭での高齢者扶養のための女性と男性の役割分担



鄭 京姫

韓国保健社会研究院
老人福祉研究チーム長

高齢化社会の到来は、われわれに老人介護(caregiving)に対する社会的な関心を求めている。多くの老人が機能状態の低下により、日常的な生の営みのためには他人の助けを受けざるを得なくなっている半面、産業化と都市化による核家族化、子供数の減少および女性の経済活動参加の増大などにより家族の老人扶養能力は減少している。

伝統的に世話の役割(caregiving)という脈絡で、老人の介護は女性の役割とみなされてきて、家父長的伝統が強い韓国の場合、おじいさんの配偶者、または長男の妻が老人の主扶養者である。西欧の場合も長男の配偶者の代わりに娘が老人の主扶養者という点以外、女性が主扶養者という共通点を持っている。

本討論を通して、家族内の高齢者扶養が女性中心的な傾向を強く見せている原因は何かを探り、女性偏向性という共通点にもかかわらず西欧社会とは違い、娘でなく嫁が主要介護者という現象とそのような現象が持つ原因、公的高齢者扶養サービスの導入方向が家族内の扶養に及ぼす影響に対して論議してみようと思う。

1. 家族内高齢者扶養における女性偏向性の原因

<表1>と<表2>で見るように家族介護者の3/4は女性である。また家族介護者の15%は妻で、約40%は嫁である。このように高齢者扶養の大多数が女性である原因としてはいくつかの原因を探ることができる。

第1には、心理的/個人的な側面で見ると、女性が男性より他人を保護し養育しよ

うとする性向を持っており、また世話を受ける対象者に対する愛着も持っている¹⁾。

1)もちろんそれぞれの説明に限界性はあるが本討論原稿では、各説明が持っている意味だけに焦点を合わせる。

<表1> 介護者の性別構成 (単位: %)

特性	性	全国	東部	邑・面部
男性		25.7	20.0	32.3
女性		74.3	80.0	67.7

資料：鄭京姫他、2001、「長期療養保護対象老人の介護実態および福祉需要—2001年度全国老人長期療養保護サービス需要調査—」、韓国保険社会研究院

<表2> 介護者の性別特性 (単位: %)

特性		全体	男性	女性
年齢	29歳以下	4.9	5.0	4.8
	30～39歳	12.5	8.5	14.0
	40～49歳	22.5	18.5	23.8
	50～59歳	17.5	13.8	18.8
	60歳以上	42.6	53.8	38.7
	平均年齢	54.7	59.4	53.1
結婚実態	有配偶	84.0	72.7	87.9
	無配偶	16.0	27.3	12.1
教育水準	無学	20.6	14.2	22.8
	小学校	33.0	36.5	31.8
	中学校	16.7	16.5	16.7
	高校	21.4	20.8	21.6
	専門大以上	8.3	11.9	7.1
宗教	なし	37.1	55.6	30.7
	仏教	35.7	23.0	40.1
	基督教	17.7	13.2	19.3
	天主教	6.7	4.3	7.5
	その他	2.8	3.9	2.4
就業有無	非就業	48.3	38.5	51.7
	就業	51.7	61.5	48.3
家族所得	30万ウォン未満	15.8	18.8	14.7
	30～70万ウォン未満	26.2	30.9	24.5
	70～110万ウォン未満	20.2	19.1	20.6
	110～210万ウォン未満	29.8	26.2	31.2
	210万ウォン以上	8.0	5.1	9.0
居住状態	同居	96.0	97.3	95.6
	非同居	4.0	2.7	4.4
老人との関係	配偶者	35.0	47.5	30.6
	子供	12.3	47.5	-
	妻	38.1	-	51.4
	娘	8.9	-	12.0
	その他	5.7	5.0	6.0
健康状態	健康である	42.0	48.5	39.8
	健康ではないが介護に支障ない	47.8	46.2	48.3
	介護に支障ある	10.2	5.4	11.9
計		100.0(1,011)	100.0(305)	100.0(706)

資料：鄭京姫他、2001、「長期療養保護対象老人の介護実態および福祉需要—2001年度全国老人長期療養保護サービス需要調査—」、韓国保険社会研究院

第2に、女性を家庭と家族生活と同一視するイデオロギーが存在している。また世話する役割は女性の役割として社会化されたために、保護労働の女性化がなされている。介護は単純な肉体的な要求を充足させるだけでなく、親近感とも関係するが、家族内の介護労働は女性の仕事というイデオロギーにより、母、夫人、娘が遂行しており、大部分の女性が行う無報酬労働は社会で十分に評価されずにおり、当然のものとしてみなされる傾向がある。また女性の無報酬労働が女性にもたらす費用をきちんと認識できずにいる。即ち、女性が介護のために甘受する財政的な独立性の損失と心理的な費用がはっきりと認識されていない。

第3に、年齢層化(age stratification)、男性の高い死亡率、年上の男性と結婚する傾向などにより、女性が男性を介護する現象が発生している。即ち、年齢が高くなるにつれ、保護を必要とする健康状態となる可能性が高まるが、上の要因により、男性の多数は配偶者がある状態であるが、女性の多くは死別状態となる。従っておじいさんは配偶者から介護を受け、多くの死別状態のおばあさんは子供から介護受けることになる。

第4に、経済活動参加における男女差が、男性よりも女性が保護労働に少し余分に介入させる。女性の経済活動参加率が男性よりも低いだけでなく、労働市場に入ろうとしてもパートとか季節的な職業を持つ可能性が高いので、女性が保護労働に参加する時間が多い。また女性の賃金水準が男性に比べて低いため、共稼ぎ夫婦の中で、一人が父母の介護のために仕事をやめ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妻が仕事を辞める決定をすることになる。

このような点から見ると、家族内の高齢者扶養における女性偏向性を抜け出し、適切な男女役割分担がなされるためには、介護当事者の個人的な解決でなく、構造的な変化が要求される。即ち、介護問題は公的／私的な暮らしを構成する方式の変化だけでなく、性平等と地域社会の責任を要求し、根本的な問題は個々人が直面するストレスをどのように緩和するのかではなく、介護を提供する人とか受ける人すべてに、もう少し公平な人間的な介護が全生涯をとおして可能になるように、社会を再構成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

2. 韓国的特殊性：義務としての介護？愛情からでる介護？

Cicirelli(1989)は、子供が老夫婦を介護する動機を公平(equity)と義務(obligation)、

愛着(attachment)から説明しているが、なかでも愛着について、性別の差が説得力を持つ。娘が母と強い愛情関係を持っているために、娘が母の介護により積極的であるという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な脈絡で見ると、韓国の場合、娘でなく長男の妻が介護を担当している点、韓国での家族内介護行為の女性化は、西欧とは違う脈絡を持っている。即ち、まだ父系中心の文化が強く残っている点で、夫に対する妻の愛情が、夫が愛着を持っている父母介護を行わせる、2段階のメカニズムを持っていると見ることができる。またこのような段階を経てから、妻が舅姑に持っている義務感に、より複合的な性格を持つようになっ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従って介護を受けている老人の立場でも、西欧の家族介護のような娘からの強い愛着に基づいた介護というよりは、義務と愛情が混合された介護動機を持っている嫁から介護を受けることになるので、安定的な介護者の関係形成のためには、より多くの努力と関心が必要であるといえる。

3. 高齢者介護のための公的保護サービス提供の基本方向 脱家族化と再家族化

家族内の保護だけでは老人の介護問題を解決できず、相互補完的役割ができる公的保護の役割が強調されている。この時、私的保護と公的保護の役割の設定法としては大きく2つある。第1は、家族保護を代替できる施設および在宅保護を公式的に提供しようとする脱家族化(de-familisation)の流れに政策的優先順位を置く場合で、もう一つは制限された資源の中で、保護の公式化だけでは急増する社会的保護への要望を充足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ため、家族を、社会的保護サービスを提供するにあたり同伴者の関係として把握し、家族構成員が提供した保護サービスの経済的価値を認める政策を進める再家族化(re-familization)を優先視する傾向である。このような観点では、老人を世話する扶養者は肉体的、精神的、情緒的、社会的緊張を経験するようになることを認め、家族支援プログラムにも焦点を置く。

脱家族化と再家族化という2つの方向をどのように政策に反映しているのかにより、外国の介護関連政策を分類してみれば、費用負担の社会化の程度と保護提供の公式化の程度がともに高い形態、即ち、脱家族化と再家族化の両方を追求する場合(例：スウェーデン)、費用負担の社会化は低いが保護提供の公式化の程度は高い形態、即ち脱家族を追求する国家(例：米国、ドイツ)、費用負担の社会化および保護提供の公式化の程度がともに低い、即ち、脱家族化と再家族化がともに低い水準で、従ってまだ家族主義的な政策基調から抜け出せずにいる国家(例：日本)がある。ところでこのような政策基調

の差は、国家の女性地位とも関連性を持っている。

最近高齢者介護問題に対して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韓国の場合、脱家族化と再家族化をどのような比重で進めるのかにより、家族内の男性と女性の役割分担に対する影響力の範囲と内容が違うことになる。万一、韓国社会が脱家族化に焦点を合わせた政策を指向すれば、家族のサービス購買能力により、高齢者の介護実態が影響を受けるだろう。しかしサービス購買と管理による企画調整の役割は、家族内の性役割分担構造に変化がなければ、女性にそのまま残る可能性がある。半面、再家族化を指向すれば、女性が行ってきた介護労働の価値が認められるという肯定的な側面があるが、社会の性役割分担構造に大きな変化はなく、これは高齢者の私的介護において女性が担当する分を却って増大させる可能性があり、これは結局、役割加重につながり、家族内の扶養の質を悪化させることもある。

プロフィール

鄭 京姫 (チョン・ギョンヒ)

韓国保健社会研究院 老人福祉研究チーム長

学歴

- 1984年 韓国 延世大学文学部 社会学科 卒業 (学士)
- 1986年 韓国 延世大学大学院 社会学科 卒業 (文学修士)
- 1991年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社会学 (文学修士)
- 1995年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社会学 (文学博士)

経歴

- 韓国 スンチョンヒャン大学 予防医学教室：人口および地域社会医学研究所招聘助教 (1987.3~1989.2)
- Teaching Assistan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990.9~1994.5)
- 韓国 延世大学社会学科 講師 (1995.3~1995.8)
- 韓国 淑明女子大学大学院 講師 (社会問題と家族福祉) (2000.3~8、2001.3~8)
- 韓国 東国大学行政大学院(老人福祉論) (2000.9~2001.2)
- 韓国 ソウルサイバー大学 客員教授 (家族福祉論) (2001.9~現在)
- 韓国保険社会研究院 研究委員 (老人福祉研究チーム長) (1995.5~現在)
- 2001 韓国 老人保健福祉対策委員会 実務委員
- 2002.10 韓国 低出産高齢社会対策チーム 専門委員
- 2003.11 韓国 老人人材運営センター設立推進企画団 諮問団
- 2003.11 韓国 中央生活保障委員会 専門委員
- 2004.02 韓国 老後所得保障死角地帯解消対策 専門委員
- 2004.02 韓国 高齢化および未来社会委員会 専門委員
- 2004.02 韓国 公的老人療養保障制度実務企画団 委員

가정에서의 고령자 부양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역할분담



정 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연구팀장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우리로 하여금 노인 수발(caregiv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요구한다. 많은 노인들이 기능상태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있는 반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대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은 감소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살핌의 역할(caregiving)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노인수발은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어 왔으며,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노인의 배우자, 또는 장남의 아내가 노인의 주부양자이다. 서구의 경우도 장남의 배우자 대신 딸이 노인의 주부양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주부양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본 토론을 통해서는 가족 내의 고령자 부양이 여성중심적인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여성편향성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화는 달리 딸이 아니라 며느리가 중심 수발자인 현상과 그러한 현상이 갖는 원인, 공적 고령자 부양서비스의 도입방향이 가족 내 부양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1. 가족내 고령자 부양에 있어서의 여성편향성의 원인

<표1>과 <표2>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수발자의 약 3/4는 여성이다. 또한 이들 가족수발자의 15%는 아내이고 약 40%는 며느리이다. 이렇게 고령자 부양의 대다수가 여성인 원인으로서는 몇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심리적/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타인을 보호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더불어 보살핌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¹⁾.

1) 물론 각각의 설명이 갖고 있는 제한점이 있지만 본 토론원고에서는 각 설명이 갖고 있는 의미에만 초점을 두고자 함.

〈표 1〉 수발자의 성별 구성 (단위: %, 세)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남자	25.7	20.0	32.3
여자	74.3	80.0	67.7

자료: 정경희 외, 2001,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2001년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둘째, 여성을 가정과 가족생활과 동일시하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있다. 더불어 돌봄의 역할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보호노동의 여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발은 단순한 육체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친근함과 관계를 포함하는 것인데, 가족 내 수발노동은 여성의 일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어머니, 부인, 딸이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여성이 행하는 무보수 노동은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의 무보수 노동이 여성에게 가져오는 비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여성이 수발을 위하여 감수하는 재정적인 독립성의 손실과 심리적 비용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연령층화(age stratification), 남성의 높은 사망률, 연상의 남자와 결혼하는 경향 등으로 인하여 여성이 남성에게 수발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건강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위의 요인들에 의하여 남성의 다수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지만 여성은 많은 수가 사별상태가 된다. 따라서 남자노인들은 배우자로부터 수발을 받게 되며, 많은 사별상태의 여성노인들은 자녀로부터 수발을 받게 된다.

넷째, 경제활동참여에 있어서의 남녀차이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보호노동에 좀 더 많이 개입되도록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남자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하여도 파트타임 일이나 계절적인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이 보호노동에 참여할 시간이 많다. 또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의 것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중 한 사람이

부모의 수발을 위하여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 아내가 일을 그만두는 결정을 하게 된다.

〈표 2〉 수발자의 성별 특성

(단위: %)

특성	전체	남자	여자
연령			
29 이하	4.9	5.0	4.8
30~	12.5	8.5	14.0
40~	22.5	18.8	23.8
50~	17.5	13.8	18.8
60 이상	42.6	53.8	38.7
평균 연령()	54.7	59.4	53.1
결혼상태			
유배우	84.0	72.7	87.9
무배우	16.0	27.3	12.1
교육수준			
무학	20.6	14.2	22.8
초등학교	33.0	36.5	31.8
중학교	16.7	16.5	16.7
고등학교	21.4	20.8	21.6
전문대 이상	8.3	11.9	7.1
종교			
없음	37.1	55.6	30.7
불교	35.7	23.0	40.1
개신교	17.7	13.2	19.3
천주교	6.7	4.3	7.5
기타	2.8	3.9	2.4
취업유무			
비취업	48.3	38.5	51.7
취업	51.7	61.5	48.3
가구소득			
30 원 미만	15.8	18.8	14.7
30~ 0 원 미만	26.2	30.9	24.5
70~ 0 원 미만	20.2	19.1	20.6
110~ 0 원 미만	29.8	26.2	31.2
210 원 이상	8.0	5.1	9.0
동거여부			
동거	96.0	97.3	95.6
비동거	4.0	2.7	4.4
노인과의 관계			
배우자	35.0	47.5	30.6
아들	12.3	47.5	-
며느리	38.1	-	51.4
딸	8.9	-	12.0
기타	5.7	5.0	6.0
건강상태			
건강함	42.0	48.5	39.8
건강하지는 않지만 수발에 지장 없음	47.8	46.2	48.3
수발에 지장 있음	10.2	5.4	11.9
계	100.0	100.0	100.0
()	(1,011)	(305)	(706)

자료: 정경희 외, 2001,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2001년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족내 고령자 부양에 있어서의 여성편향성을 벗어

나 적절한 남녀역할분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발 당사자 개인적인 해결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즉 수발문제는 공적/사적 삶이 구성되는 방식의 변화 뿐만 아니라 성평등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요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개개인이 당면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수발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좀 더 형평성 있고 인간적인 수발이 전생애에 걸쳐서 가능하도록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한국적 특수성: 의무로서의 수발? 애정에서 나오는 수발?

Cicirelli(1989)는 자녀가 노부모를 수발하게 되는 동기를 형평(equity)과 의무(obligation), 애착(attachment)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중 애착이 수발에 있어서의 성차이를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있다. 딸이 어머니와 강한 애정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들보다는 딸이 어머니 수발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 딸이 아니라 장남의 아내인 큰며느리가 수발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서의 가족 내 수발행위의 여성화는 서구와는 다른 맥락을 갖고 있다. 즉 아직도 부계중심의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애정이 남편이 애착을 갖고 있는 부모수발을 행하게 되는 2단계의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아내가 시부모에게 갖고 있는 의무감으로 인해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발을 받고 있는 노인의 입장에서든 서구의 가족수발과 같은 딸로부터의 강한 애착에 기반한 수발이라기 보다는 의무와 애정이 혼합된 수발동기를 갖고 있는 며느리로부터 수발을 받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수발자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수 있다.

3. 고령자 수발을 위한 공적 보호서비스 제공의 기본방향 탈가족화와 재가족화

가족 내 보호만으로는 노인의 수발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공적보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 때 사적 보호와 공적 보호의 역할의 설정방안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족보호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및 재가보호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려는 탈가족화(de-familisation)

의 흐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제한된 자원 하에서 보호의 공식화만으로는 급증하는 사회적 보호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동반자 관계로 파악하고 가족구성원이 제공한 보호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재가족화(re-familization)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가족지원 프로그램에도 초점을 둔다.

탈가족화와 재가족화라는 두가지 방향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에 따라 외국의 수발관련 정책을 분류를 해보면, 비용부담의 사회화 정도와 보호제공의 공식화가 정도가 모두 높은 형태 즉, 탈가족화와 재가족화를 모두 추구하는 경우(예:스웨덴), 비용부담의 사회화는 낮으나 보호제공의 공식화 정도는 높은 형태 즉, 탈가족화를 추구하는 국가(예:미국, 독일), 비용부담의 사회화 및 보호제공의 공식화 정도가 모두 낮은 즉, 탈가족화와 재가족화가 모두 낮은 수준이며 따라서 아직 가족주의적 정책기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국가(예:일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기조의 차이는 국가의 여성지위와도 연계성을 갖고 있다.

최근에 고령자 수발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우리나라의 경우, 탈가족화와 재가족화를 어떻게 어떠한 비중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담에 대한 영향력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우리 사회가 탈가족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지향한다면 가족의 서비스 구매능력에 의하여 고령자의 수발실태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구매와 관리에 따르는 기획조정 역할은 가족 내 성역할 분담구조에 변화가 없다면 여성에게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재가족화를 지향한다면, 여성이 행해온 수발노동이 가치가 인정받게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회의 성역할분담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는 고령자의 사적 수발에 있어서 여성이 담당하는 몫을 오히려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역할과중으로 이어져 가족내 부양의 질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프로필

鄭 京 姬 (정 경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연구팀장

학력

- 1984 : 한국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학사)
- 1976 : 한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문학석사)
- 1991 :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사회학(문학석사)
- 1995 :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사회학(문학박사)

경력

- 한국 순천향대학교 예방의학교실 : 인구 및 지역사회의학 연구소 초빙조교
(1987. 3 - 1989. 2)
- 조교(Teaching Assistan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990. 9 - 1994. 5.)
- 한국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1995. 3 - 1995. 8)
- 한국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강사(사회문제와 가족복지)(2000.3-8, 2001.3- 8)
- 한국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노인복지론) (2000. 9- 2001. 2)
- 한국 서울사이버대학 외래교수(가족복지론) (2001. 9- 현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노인복지연구팀장) (1995. 5 - 현재)
- 2001. 한국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실무위원
- 2002. 10 한국 저출산고령사회 대책팀 전문위원
- 2003. 11 한국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추진기획단 자문단
- 2003. 11 한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
- 2004. 2 - 한국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해소 대책 전문위원
- 2004. 2 - 한국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전문위원
- 2004. 2 - 한국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무기획단 위원